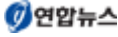


두산 레지던시 뉴욕의 3년을 돌아보다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7-18 14:19



<사진설명 = 김기라, Wall Painting with Still Life, 2008-2012, paint on the wall, size variable.
두산갤러리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18일 개관 5주년을 맞이한 두산갤러리가 최근 확장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을 기념해 두산 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그룹전을 열었다.

재개관 기념전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두산 레지던시 뉴욕 프로그램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다.

두산갤러리는 2009년부터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인 미국 뉴욕 첼시에서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열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해왔다.

두산 레지던시 뉴욕은 매년 6명의 작가를 지원해 두산갤러리에서의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와 작업실, 각종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부여한다.

권오상, 김기라, 김인배, 김인숙, 민성식, 박윤영, 백승우, 성낙희, 이동욱, 이주요,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홍경택 등 레지던시 참여 작가 14명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8월 19일까지. ☎02-708-5050.

mong0716@yna.co.kr

